

# 총파업 특보 7호

## MBC 파괴 공작 '판도라 상자' 열렸다



김장겸-고영주가 뻔뻔히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다. MBC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언론 자유를 이미 철저히 유린당했다. 보수 정권에 빌붙고 극우 세력과 한 입처럼 말하는 그들이 '자유'나 '독립'이니 떠드는 말짱거리는, 차라리 대국민 사기극이다.

### 국정원의 MBC 장악, '21세기판 보도지침'

그 일단을 최근 국정원 개혁위가 사실로 확인 해줬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과 청와대가 나서서 MBC 프로그램들에서 특정 연예인들의 출연을 차단하거나 교체하고, 심지어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시키는 '공작'을 벌였다. '국정원장 지시'로 "MBC의 '공영방송 잔재'를 청산하고, 인적 쇄신과 프로그램 퇴출을 추진"했다. 김재철 사장 취임이 본격적인 공작의 방아쇠가 됐다.

해고와 부당전보, 프로그램 폐지 등이 난무했던 배경엔 군사정권보다 더한 21세기판 국정원 보도지침과 김재철 일당의 공모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 조합 긴급조사... 박근혜 정권서 더욱 광범위

조합은 국정원의 MBC 장악이 구체적으로 MBC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각 부문별로 확인하는 긴급 조사를 벌였다. 결과는 국정원 개혁위 조사보다 더욱 충격적이고, 광범위했다. 특정 출연자나 프로그램을 퇴출시키기 위해, MBC 내 부역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졸했는지 생생한 증언들이 터져 나왔다. 부당한 배제와 검열은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극악하고 전방위적이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보도, 시사, 라디오는 말할 것도 없고, <무한도전> 같은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와

다큐에까지 마수가 뻗었다. 미스코리아 출신 연기자와 스포츠 스타도, 그들만의 정치적 잣대와 가위로 '들어내고 오려냈다'.

참담했던 경험과 목격, 그 개별적 증언들을 이제 역사로 기록하고 공론화할 것이다. 오늘 총파업 특보는 그 출발이다. 누가, 언제, 어떻게, MBC를 파괴시켰는지, 국정원 개혁위가 다 조사하지 못한 MBC 잔혹사를 공개한다. 김제동의 고백처럼, 너무도 흥측해서 그동안 차마 다 말할 수 없었던 그들의 파괴 공작, 그 한 건 한 건 분노로 폭로하고, 참회로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적폐의 심장을 도려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우리가 블랙리스트 피해자이자 증인입니다”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방송인 김제동 씨가 어제 오전 파업 집회 현장을 찾았다. 하고 싶은 얘기, 해야 할 얘기가 많았던 그의 발언은 30분을 훌쩍 넘겼지만, 특유의 입담 덕택에 폭소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담담한 어조로 풀어낸 이야기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묵직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 “나 감시하던 국정원 직원, 직접 만났다”



김제동 씨는 “그동안은 쪽팔려서 말 못했다”면서, 자신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을 직접 만났던 일화를 MBC 조합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이 ‘몇 시 몇 분, 서래마을에서 김제동 만남’ 이런 보고문자를 (윗선이 아닌) 저한테 잘못 보냈다.” 김제동 씨는 ‘문자 잘못 보냈다’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직원을 직접 만나게 됐

다고 전했다. “자신을 VIP한테 ‘직보’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때는 안 믿었다. 그런데 이번에 문건 나온 거 보니까 진짜더라.”

술자리에 마주앉은 국정원 직원은 김제동 씨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노제사회도 봤으니 1주기는 안 가도 되지 않냐”며 “김제동 씨 방송해야 되지 않냐”, “VIP가 김제동 씨 걱정이 많다”는 말을 꺼냈다. 당시 ‘VIP’,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 뭇보이면 방송 출연 어렵다는 얘기였고, 사실상 ‘밥줄’ 끊길 각오를 하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였다.

김제동 씨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촌놈 시절이어서 무서운 게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거꾸로 국정원 직원에게 충고했다. “VIP 임기는 4년 남았지만 내 유권자 임기는 평생 남았다. 국가기관 정보원이 민간인을 협박하면 훗날 당신에게도 뒤탈이 생긴다. 난 그 행사 갈 거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라.” 소주 4병 마신 술값까지 호쾌하게 계산하고 나왔지만,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김제동 씨는 무릎이 ‘딱’ 꺾일 정도로 무서웠다고 했다. “아, 그 얘긴 하지 말걸.. 온갖 생각과 자괴감이 들었고, 공황장애 증세까지 나타났다.”

## “원세훈 한마디 언급하자 바로 잘렸다”

이 날 ‘시사인’ 주진우 기자도 파업 집회에 나와 자신의 ‘블랙리스트’ 경험담을 증언했다.

“MBC에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하다가 원세훈 국정원장 이야기를 한 마디 했다. 원세훈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



는데 ‘둘이 아는 사이에 잘 지내라, 이런 걸로 국가 기관이 무슨 소송까지 하나’ 이 한 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로 (저를) 잘랐다.”

그러면서 주 기자는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은 이명박, 김제철일 수 있지만 그걸 실행한 사람은 여러분의 동료이고 선배”라고 덧붙였다. “동료들이 어려울 때 누가 대신 마이크를 잡았고, 누가 지금 끝까지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예능에서도 세월호 · 촛불은 금기어

작년 9월 방영된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해피 피라미드333>, 출연자가 세 가지 선행을 베풀고, 3명의 다음 주자를 정해 선행을 피라미드처럼 퍼뜨려간다는 내용이었다. 여자 배구의 스타로 떠오른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가 출연했다. 터키 리그에서 활동하며 세월호 참사에 큰 충격을 받았던 그녀는 세 가지 선행 중 하나로 ‘세월호 희생자 기억하기’를 정했다. 그리고 본인의 고향이기도 한 경기도 안산을 찾아 분향소를 방문했다.

## 세월호 방송하려면 불이익 감수하라

이 사실을 알게 된 보직 간부는 “방송 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고 제작진에게 경고했다. 분량은 단 2분이었다. 총 105분의 전체 방송

중 단 2분도 ‘세월호’와 관련됐다면 불이익을 각오하라는 것이다. 제작진은 출연자와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고 맞섰다. 인터뷰 수정을 거부하던 PD에게 그렇다면 “진실 인양”이라는 자막이라도 빼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왔다.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방송은 나갈 수 있었다. 4월 16일, 세월호 3년 당일 <섹션TV 연예통신> 방송에서도 ‘세월호 발작’은 또 발병했다. 스타를 인터뷰하는 코너에서 김제동 씨에 대한 취재를 간신히 허가받았지만, “세월호를 언급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당부와 확인이 이어진 것이다.

## 연예인 시국발언 · 촛불집회는 배라

<섹션TV 연예통신> 뜻밖의 수난사는 이 뿐

만이 아니다. 작년 11월 13일, 연예뉴스 단신 코너에서는 실점 1위에 오른 ‘연예계 시국 소신 발언’과 촛불집회에 참여한 연예인 소식 등이 다뤄졌다. 그러자, “정치적인 것을 하지 마라”, “순위를 내려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경쟁사들의 연예 프로그램들은 모두 아무 문제없이 다루던 내용들이었다. 지난 3월 12일 탄핵 결정 직후, 스타들의 SNS 반응을 담은 꼭지를 두고도 보직 간부는 “PD가 정치적인 의도를 두고 만든다”고 제작진을 비난했다. 그 간부는 “상부의 우려를 전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보도와 시사교양은 물론 예능에서도 광범위하게 발병했던 ‘세월호-촛불 발작’. 단 몇 초의 프로그램 예고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대선 방송을 준비하던 선거방송기획단은 D-50일 예고 광고를 여러 차례 반복해 수정해야 했다. 촛불집회로 치러진 조기 대선의 방송인만큼 5초 남짓, 촛불집회 영상 단 두 컷을 썼지만, 이를 시사한 임원이 “촛불집회에 국민들이 지켜있다”는 이유로 영상을 바꿀 것을 지시했다. MBC 전과라면 단 몇 초의 ‘세월호’와 ‘촛불’도 그들의 축수에는 거슬렸던 것이다.

# 파업 참가 아나운서 최우선 배제



## “왜 12명이 면벽수련을 하다 떠났을까?”

지난 8월 김소영 아나운서가 MBC를 떠났다. 한 후배 아나운서가 토로했다. “실력도, 인지도도 누구 못지않고, 섭외 요청도 끊이지 않던 아나운서가 왜 10달 동안 벽만 보고 지냈을까?” 12명이 면벽수련하다 회사를 떠나고, 11명이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이유를 다시 물었다.

국정원의 블랙리스트가 외부 출연진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던져졌다면, MBC 내부에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검열 시스템이 작동했다. 집회에서, 선전전에서 가장 앞서 공영방송 사수를 외쳤던 MBC의 얼굴, 아나운서들은 최우선순위 배제 대상이었다. 외부 압력도 없었다. 경영진은 자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편집중 환자처럼 이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지워나갔다.

## “위에서 싫어해서 안 된다”

실제 김소영 아나운서는 MBC 사퇴 석 달 전 개편을 맞은 한 예능프로그램의 MC로 낙점됐다. 예능 파일럿 프로그램 출연도 무산된 그녀에게 이번엔 기회를 줄 거라 기대했지만, 보직간부는 한 달을 끌며 갖은 이유를 댔다. 마지막 변명은 예상대로였다. “위에서, 부사장이, 아나운서 국장이... 싫어해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후 아나운서국에서는 무조건 특정 아나운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제작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난항을 겪던 후임자 선정은 결국 기나긴 협의 끝에 제작진이 요구한 두 번째 후보가 어렵게 진행자석에 앉고 나서야 마무리됐다.

2013년 퇴사한 오상진 아나운서는 2015년 초 <진짜사나이 시즌2>에 캐스팅됐지만, 없던 일이 됐다. “임원들이 엄청 싫어한다”며 ‘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최현정 아나운서의 ‘여군 특집’ 출연 역시 ‘한 소리’를 듣고 중단됐다. 빈자리는 경쟁사의 퇴사 아나운서가 채웠다.

## 편집중 환자 수준, “만들어 봐야 폐기처분” 막말까지...

‘파업 아나운서 포비아’는 발작적인 편집중 환자 수준이었다. 작년 <DMC 페스티벌> 당시 상영할 한류 관련 영상물에 박해진 아나운서의 뉴스 앵커 시절 뉴스보도가 들어갔다. 녹화도 중 백종문 부사장이 “재가 왜 저기 나오냐”고 ‘한 소리’를 던졌고, 영상물은 부랴부랴 박해진 아나운서를 빼고 재편집해야 했다.

2014년 한 드라마에 연기자로 변신한 오상진 아나운서가 캐스팅됐다. 장근수 당시 드라마 본부장은 “만들어 봐야 폐기처분이니 접고 올라오라”는 막말을 내뱉었다. 담당PD는 CP에게, CP는 다시 임원진에게 캐스팅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소명하고서야 방송이 가능했다. 드라마속 뉴스 전달자로 아나운서들이 출연하는 일도 어려워졌다는 게 다수 제작진의 중언이다.

최근 <세모방>의 ‘리듬댄스’편에 다시 오상진이 섭외되자, 보직간부가 제작진을 불러 분량과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 반복된 사실상의 사전검열, 결국 PD들에게 “개는 섭외하면 안 되는 구나”하는 암묵적인 인식이 퍼졌다. MBC의 자율성은 그렇게 자기검열로 변해갔다.

꼭 찍어 삭제된 동료들의 얼굴과 목소리 자리는 이른바 ‘신동호 라인’의 차지가 됐다. 대표 예능물에 특정 아나운서를 출연시키라는 강권과 압력이 본부장과 국장에게 전해진다. 이미 캐스팅이 끝난 프로그램에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다. 이 과정이 반복됐다. “애가 물건이니, 어디든 넣어라” 스포츠 중계 형식을 차용한 예능물에선 해설 2명에 억지로 2명의 캐스터를 끼워 넣어, 총 4명이 진행되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 “다음에 자네가 기획해서 만들게. 정권도 바뀌었으니...”

파업 참가 아나운서를 섭외하려던 한 PD에게, 보직간부가 건넨 말이다. 그 자리엔 ‘신동호 라인’이 이미 내정돼 있었다. 출연진의 자질은 중요하지 않았다. ‘시청자’를 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정권’의 눈치만 보며, 누가 지시한 적도 없는, 또 다른 시키면 블랙리스트를 써 내려갔다.

# MBC 블랙리스트 인물 열전

## 김장겸 “전원책 안된다, 정규재는 어떡냐?”



2016년 4.13 총선준비기획단은 2015년 말경 유시민과 전원책의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해 당시 김장겸 보도본부장에게 보고했다. 유시민과 전원책이 JTBC 썰전에 출연하기도 전이다. 이를 보고 받은 김장겸 당시 본부장은 ‘전원책과 유시민은 안된다’고 단칼에 잘랐다. 대신 김장겸은 뜬금없이 ‘정규재’라는 인물을 추천했다. 총선기획단은 정규재가 누군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봐야 했다. 정규재는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 대통령과의 편향적인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켜 유명세를 탔지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듣보잡’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비 ‘썰전’ 기획은 정규재에 밀려 무산됐다.

탄핵 국면에서 박 대통령과의 편향적인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켜 유명세를 탔지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듣보잡’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비 ‘썰전’ 기획은 정규재에 밀려 무산됐다.

## “표창원은 방문진 이사가 싫어한다”



시사매거진2580은 2015년 2월 청주의 ‘크림빵 빵소니 사건’을 방송했다. 이를 취재한 기자는 표창원 범죄분석가를 섭외해 자문을 구했고 그의 인터뷰를 실어 기사를 작성했다. 표창원은 당시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이었다. 그런데 부장 출고까지 마치고 편집에 들어간 해당 기자에게 느닷없이 표창원의 인터뷰를 빼라는 당시 송재우 시사제작국장의 지시가 날아들었다. ‘방문진 이사가 표창원을 탐탁지 않게 본다’는 게 이유였다.

시사매거진2580에서 이런 일은 다반사였다. 금태섭 의원, 김경진 의원, 한홍구 교수, 이외수 작가 등이 명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인터뷰는 표창원처럼 모두 잘려나갔다.

## 송강호 나오니, 고영주 ‘화들짝’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2016년 11월 이례적으로 콘텐츠제작국장을 통해 ‘출발 비디오 여행’의 대본을 요구했다. 해당 대본은 ‘2017년이 기대되는 배우들’에 대한 것이었고 여기에는 송강호와 영화 변호인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영화 변호인은 1981년 있었던 ‘부림 사건’을 다뤘는데, 고영주 이사장은 당시 이 사건의 담당 검사 중 한 명이었다. 자신과 관련된 영화가 방송에 나가자 뒤늦게 그 내용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김형석 하차, 사실은..



복면가왕의 인기 패널이었던 작곡가 김형석은 지난해 3월 중도 하차했다. 당시엔 김형석의 다른 일정 때문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김엽 예능본부장에 의해 퇴출된 것이다. 김형석은 2015년 12월 본인 트위터에 문재인 지지 발언을 올렸다. 2016년 1월엔 더불어민주당 총선 로고송을 만든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자 김엽 본부장이 하차를 종용했다는 게 제작진의 증언이다. 복면가왕 파일럿 방송 때부터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김형석이지만, 박근혜

정권이나 보수 정당이 조금이라도 싫어할만한 인물이면 예능 프로그램에서마저도 가차 없이 배제시킨 것이다.

## 풍자의 대가 배철수, MBC에서 퇴출 뒤 대박



2014년 볼라디오 개편 당시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배철수가 진행하던 ‘대통령퀴즈’ ‘대충토론’이 없어졌다. 당시 담당 부장은 “현재의 시사 쿵트 형식이 청취자들에게 잘 먹히지 않아 경쟁력이 없다”며 “배철수와 박찬혁 작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상 배철수와 박찬혁 작가를 내치라고 압박한 것이다. 결국 그의 뜻대로 됐다. 배철수와 박찬혁 작가는 나란히 MBC를 떠났고 이 둘은 TBS에서 의기투합

해 ‘백만토론’을 만들어 대박을 쳤다.

## ‘나가수’ 윤도현, ‘듀엣가요제 안된다’



얼마 전 방송을 마친 듀엣가요제 시즌1. 파일럿 프로그램 기획 당시 담당 PD는 당초 기획안에 윤도현을 MC 후보로 올렸었다. 하지만 김엽 당시 예능본부장은 어떠한 이유나 설명 없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 결국 윤도현 씨한테 섭외 시도조차 못하고 다른 MC를 찾아야 했다. 윤도현은 타사 프로그램들에선 왕성히 출연중이다.

**유시민이 '문제 인사'?**



유시민 작가는 2016년 11월에 방송된 MBC스페셜 '공부중독'에 출연했다. 뒤늦게 공부에 빠진 어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공부의 의미를 설명하는 유 작가의 인터뷰는 시청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정치 색과는 무관한 내용이었지만, 방송 뒤 김현중 당시 편성제작본부장은 '문제 인사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제작진을 혼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선 2013년엔 무릎팍도사에서 유 작가를 섭외했었다. 당시 원만식 예능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캐스팅을 마쳤고 녹화 날짜까지 협의해 정한 상황. 그런데 뒤늦게 예능본부장은 "위에서 유시민의 출연을 반대해 어쩔 수 없다"며 제작진에게 사과를 했다. 결국 그의 출연은 무산됐다.

**기생충 학자, 서민 교수가 사라진 이유는?**



베란다 쇼의 '썬스틸러'였던 서민 교수. 교수답지 않은 개그 본능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학 개그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김현중 당시 교양제작국장은 서민 교수가 경향신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칼럼을 쓰고 있다며 그를 하차시키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게 제작진들의 증언이다. 제작진은 베란다 쇼가 정치적인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버텼지만, 사측은 결국

2014년 4월 그를 하차시켰다.

**<무한도전>에도 외압, "창조경제 다뤄달라"**

<무한도전>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한도전> 담당 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MBC 경영진을 통해 <무한도전>에서 '창조경제' 관련 내용을 다뤄달라고 요구했다"고 털어놓았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다. 담당 국장은 "무한도전 제작진과 창조경제에 대해 협의를 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만나 논의 하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제작진이 직접 청와대로 가는 건 부담스러워 국장인 내가 광화문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무실에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한 요구는 1년 동안 계속될 정도로 집요했다. MBC 간판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비교적 외압으로 인한 영향을 덜 받은 편이었다. 담당 국장은 창조경제 아이템 압박에 대해 "어차피 그들도 무한도전은 함부로 못해서인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면 역압은 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드라마도 덮쳤다**

**문성근 · 이하늬 · 김여진 등  
잇따라 출연 배제**



배우 캐스팅은 드라마PD의 고유 권한이다. 경영진이 배우 캐스팅에 관여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CP나 국장이 '이 배우 괜찮을 거 같다'며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 최종 결정권은 언제나 담당 PD에게 있었다. 이런 원칙은 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무너졌다. 비선실세 정윤희의 아들이 특별 대우를 받으며 캐스팅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뿐만이 아니었다.

한 드라마PD는 2014년 배우 이하늬를 캐스팅하려고 했다. 하지만 회사 간부가 반대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하늬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더 황당한 일은 그이후에 벌어졌다. 이 드라마의 제작사 대표가 직접 담당 PD를 찾아와 '이하늬 캐스팅은 안 된다'며 부탁을 한 것이다. 제작사 대표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특정 배우의 출연을 반대하는 건 분명 이례적인 일이었다. 담당 PD는 당초 계획대로 이하늬를 캐스팅했지만, 회사 간부는 조연출에게 전화해 '나를 무시하냐'며 30분간 화풀이를 해댔다. 제작진은 지금도 이하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배우들의 캐스팅도 불가능했다. 한 PD는 문성근을 캐스팅하겠다고 CP에게 보고했지만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문성근 캐스팅을 포기하고 나자 더 이상 말은 나오지 않았다. 김여진도 배제 대상이었다. 김여진을 드라마에 캐스팅하려고 한 PD는 섭외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김여진측으로부터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김여진은 이미 MBC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측의 반대로 출연이 무산된 상태였다.

자신의 작품에 출연할 배우를 PD가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 '블랙리스트' 외압으로 얼룩진 드라마 왕국 MBC의 오늘 현실이다.

# 국정원, 전대미문 방송 장악

## MBC 특정 연예인-프로그램 퇴출

### 2010년 4월 김제동 출연 MBC <환상의 짝꿍> 폐지 유도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혀낸 ‘좌파 연예인 대응 T/F’ 활동에 포함된 내용이다. 실제로 그 석 달 뒤인 2010년 7월, <환상의 짝꿍>은 폐지됐다. 이명박 정권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국내외 보안 정보 수집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특정 방송사, 특정 프로그램, 특정 연예인을 꼭 짚어 퇴출시키는 엉뚱한 일을 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 국정원법, 방송법 다 무시한 전대미문의 초법적 방송장악이다.

2009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한 <오마이텐트>에도 김제동이 출연했다. 방송은 성공적이었다. 시청률 13%로 파일럿 중 최고를 기록하며 인터넷에서 정규 편성 청원운동까지 일어났다. 하지만 안광환 당시 편성국장은 콘셉트가 모호하다는 등 석연찮은 이유로 정규 편성을 무산시켰다. 높은 시청률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정이었다는 게 편제 PD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오마이텐트> 정규 편성 무산, <환상의 짝꿍> 폐지까지 이어지면서 김제동은 국정원의 목표대로 MBC에서 퇴출됐다.

### 2011년 4월 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 사항이다. 실제로 MBC 라디오에선 내로라하던 진행자들이 차례로 퇴출된다. 주요 타깃은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를 진행했던 김미화다. 국정원장이 지시를 내린 2011년 4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진행자는 실제로 교체됐다. 사측의 퇴출 압박은 집요하고도 전방위적이었다. 2011년 3월부터 편성부장, 본부장, 심지어 사장까지 대놓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김미화는 ‘KBS에 출연 금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발언해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도 ‘나가라’는 압박이 한 달 동안 가해지자 김미화는 결국 2011년 4월 25일 자

진 하차를 선언했다. 그리고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 3시간 만에 후임자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윤도현도 비슷한 시기 라디오 <두시의 데이트>에서 하차했다. 2010년 가을부터 <두시의 데이트>를 진행하던 윤도현과 제작진은 1년 만에 진행자가 교체된다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당시 담당 부장에게 확인한 결과 ‘맞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담당 부장은 윤도현에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제안을 했지만 윤도현은 “내가 자리를 옮기면 누

군가의 자리를 빼앗을 수밖에 없다”며 거절했고, 결국 MBC 라디오를 떠났다.

2011년 당시 팟캐스트 <나꼼수>로 인기를 끌었던 김어준 역시 라디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에서 5개월 만에 쫓겨났다. PD연합회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가 당시 김재철 사장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를 한 게 화근이었다. 회사 간부들은 김재철 사장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했고, 김어준이 이를 거부하자 5개월밖에 안 된 프로그램을 아예 폐지시켰다. 팟캐스트 다운로드 횟수가 급증하는 등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던 상황이었다.



### 국정원 TF - MBC 장악 일지

일시	국정원 TF 조치	MBC 상황
2009.7	국정원 TF 가동	
2009.10	특정 연예인 기획사 세무조사 유도	김제동 출연 <오마이텐트> 편성 불가 <100분 토론> 손석희 MC 퇴출
2010.2	MBC 라디오 진행자 교체 (연예인) 유도	
2010.3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원장 지시)	김재철 사장 취임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큰 집 가서 조인트 맞고 좌파 정리”
2010.4	MBC 김제동 출연 <환상의 짝꿍> 폐지 유도	김제동 출연 <환상의 짝꿍> 폐지 김재철 사장 반대 노동조합 39일 파업
2010.8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보고	<PD수첩> ‘4대강 수심 6m비밀’ 불방 청와대 ‘대통령과의 대화’ 생중계 압력
2011.4	MBC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김미화 퇴출 <시선집중> 시사평론가 김중배 퇴출
2011.8	MBC 문화·연예계 출연인물 퇴출 유도 - 특정인물 전보·하차, 사규 출연제한 규정 마련	MBC 소셜테이너 금지 사규 신설 김여진, 김장훈, 윤도현, 박미선, 김어준, 이하늘 퇴출

# 국정원 지침, MBC서 누가 실행했나



국정원에서 만든 '블랙' 리스트 '는 MBC로 건너와 '핏빛' 살생부로 다시 쓰였다.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국정원의 MBC 장악 지침이 정확히 MBC내 누구에게 전달됐고, 누구에 의해 집행됐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김미화 등 블랙리스트 출연자들이 실제 MBC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과정을 역추적하면, 국정원의 공작에 관여한 MBC내 하수인들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국정원 TF가 'MBC의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을 시작한 지난 2011년 4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진행자 김미화에게 줄기차게 사퇴를 종용한 건 김도인 당시 편성기획부장이었다. 그가 라디오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담당 프로그램 중 하나인 <두 시의 데이트> 진행자 윤도현도 MBC를 떠났다. 론칭 직후부터 화제를 몰고 다녔던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도 비슷한 시기 결국 사라졌다. 50년 역사의 MBC라디오가 고사되는 사이, 김도인은 라디오 국장을 거쳐 편성제작

본부장까지 승승장구했다.

당연히 김도인 혼자 실행한 것은 아니다. 김도인은 2011년 10월 라디오국 DJ들에게 보낸 단체메일에서 "저로서도 막다가 도저히 안 되었기에 그런 제안(출연자 교체)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워선의 압박을 실토한 것이다. 다른 라디오국 보직간부도 "김미화 아웃에 대한 본부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털어놨다. 김도인도 여러 심부름꾼 중 하나였을 뿐, MBC 블랙리스트 실행이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는 얘기다.

"뜻이 확고했다"던 당시 본부장은 이우용 전 춘천MBC사장이다. 그는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작가를 불러 "왜 상담 프로에서 시사를 다루냐, 게스트가 이상하다"고 트집을 잡고 프로그램 폐지를 주도했다. 또,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담당 PD에게 "김미화 내리고 백지연으로 가자"고 썬치를 박은 장본인이다. 물론 그 역시 하수인이었을 뿐 더 워선이 있었다.

정점은 바로 김재철 전 사장이었다. 2011년 4월 8일 엘리베이터에서 김미화와 마주친 김 전 사장은 로비까지 쫓아오면서 "라디오 본부 시끄럽던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기면 안 되냐"고 대놓고 프로그램 하차를 압박했다. 보직 부장, 본부장에 사장까지 '출연자 퇴출'을 위해 집요하게 움직였다. 결국 김미화 씨가 자진 하차하자, MBC 홍보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3시간 만에 후임을 발표했다. '큰 집에서 조인트 맞고 좌파를 정리했다'는 김재철 사장이 공영방송 MBC를 국정원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 집요하고 치졸한 수법...세무조사까지 동원

이명박 정권은 MBC에서 특정 출연자를 찍어내기 위해,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와 국세청 등 최고 권력 기관들을 총동원했다. 그만큼 수법도 극악무도했다. 국정원은 김제동을 쫓아내기 위해 3년 동안 진행했던 <환상의 짝꿍> 프로그램을 아예 폐지시키는 공작을 펼쳤다. 시청률도 좋았고 호평까지 받았던 파일럿 프로그램 <오마이텐트>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규 편성이 불발된 데엔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다. 담당 PD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이 직접 김제동 소속사 김영준 대표에게 전화해 '김제동을 자제시키라'며 '오마이텐트' 그제 방송이 될 거 같냐'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동관 수석의 말대로 실제

MBC에서 <오마이텐트>는 더 이상 방송되지 않았다. MBC의 편성이 정권 실세의 발언과 일치해 이뤄진 것이 그저 우연이었을까?

### 세무조사까지 동원한 '소속사' 협박

이명박 정권의 집요한 '김제동 죽이기' 엔 사정기관까지 동원됐다.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 2009년 10월 당시 국정원은 '특정 연예인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도한다. 곧바로 김제동, 윤도현이 속한 '다음기획'은 국정원의 기획대로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다. 한 번이 아니었다. 국정원은 2011년 6월, 김제동 윤도현의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차 기획했

고, 해당 소속사는 세무조사를 또 받아야 했다.

**"<오마이텐트>하고 싶으면 <W>를 죽여라"**

MBC 경영진도 김제동이 출연하는 <오마이텐트>의 정규편성을 치졸한 방식으로 막아섰다. 안광한 당시 편성국장은 담당 부장에게 "<오마이텐트>가 정 하고 싶으면 <W>부터 죽여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W>는 당시 유일하게 남아 있던 국제 시사 프로그램으로 환경과 노동 등 국제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라면 '학을 떼는' 임원진의 눈엣가시였다고 한다. <오마이텐트> 정규 편성과 <W> 폐지를 마치 거래하듯 백하리는 안광한의 치졸한 제안은 제작진으로선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오마이텐트>는 MBC에서 파일럿으로 끝났다. 얼마 뒤 경쟁사가 비슷한 콘셉트의 '힐링캠프'를 론칭했고, 대박이 났다. <오마이텐트>를 사장시킨 MBC 경영진은, 석 달 뒤 끝내 <W>와 <후플러스> 같은 시사 프로그램들마저 폐기시켰다.



# 파업 이후 최우선 과제는 세월호 진실의 재조명

## 처절한 반성과 성찰의 기록 남겨야

짐작은 했지만 충격적인 일들이다. 지난 9년간 술하게 벌어졌던 배제와 격리, 유배와 축출, 프로그램 폐지. 그 배후에는 공영방송 장악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고, 무도한 정권과 결탁한 공범자들의 부역이 있었다. 안광환이 상암 사옥 로비에 걸여놓은 현판 글귀 '음수사원 굴정지인(飲水思源掘井之人)'은 지금 그렇게 읽힌다. 투쟁의 이유와 목표도 분명해졌다. 지난 9년간 쌓여온 적폐들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것, 그것이 이번 파업의 최우선 목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김장겸 하나 몰아내는 것만으로 MBC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를 두 번 죽인 건 여러분 사장이 아니라 바로 현장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세월호 희생자 예은 양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던진 가슴 아픈 질책이다. 우리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이번 파업의 사명이다.

세월호 보도 참사는 MBC의 분명한 과오로 남아 있다.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소극적으로 방관했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왜 진실을 침몰시키고,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지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재건을 위해 미래를 위해 나선 싸움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 없는 미래는 공허하다. 재건 또한 불가능하다.

80년대 군사독재시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싸웠던 선배들은 광주와 진실을 재조명해냈다. 그것은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뒤늦게나마 공영방송의 책무를 바로 세웠던 이정표였다. 이번에는 세월호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부터 바로 세울 것이다. 전부문의 역량을 모아 세월호의 진실을 재구성할 것이다. 그 방송이 전과를 타는 날이 MBC가 진정으로 바로 서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여러 고비마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외치면서 기록을 남기고, 국면을 바꿔온 건 바로 우리들이었다. 힘들고 불편한 일이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새겨야 할 때다. 우리는 많은 이들

에게 빛을 지고 있다. 다시는 언론 보도로 고통받지 않으려고 파업을 지지한다는 세월호 희생자가족의 절규,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동료들의 눈물,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승리해서 갚아야 할 빛이다.

사측이 세월호를 얘기한다. 그 긴박한 순간, 무능으로 방관했던 그들이다. 세월호가 정치적 쟁점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세월호 특조위를 혈뜬는데 혈안이 됐던 그들이다. 심지어 유가족을 깡패라 지칭하고 유가족들의 조급함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다그쳤던 그들이다.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에 동조해 방송인으로서 최소한의 직업 윤리까지 저버렸던 그들이다. 그들은 세월호를 말할 자격이 없다. 방송을 논할 자격이 없다. 어디까지나 청산해야 할 적폐들일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다시는 MBC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이번 싸움의 최우선 목표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MBC라는 공간을 허락할 수 없다. 다음 주 우리의 투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 부역 대가로 내리쬐힌 '낙하산들' 퇴진하라



김철진



심원택



김현중



장근수

국정원과 청와대의 기획에 동조하고, 김재철·안광환·김장겸 체제에 적극 협조하면서 선·후배, 동료들을 짓밟으며 공영방송 MBC를 권력에 바친 '공범자들'이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그 부역의 대가로 지역 MBC에 낙하산 사장으로 내리쬐혔다. 불쾌하지만 익숙한 이름들이다.

목포MBC 김현중 사장은 <PD수첩> 최승호 PD 등 6명을 다른 부서로 강제 발령냈고, 시사제작국장 당시 <시사매거진2580>과 <PD수첩>에 재갈을 물렸다. 세월호 참사 다큐 제작 지시를 반복하기도 했다. 공교롭게 지금은 세월호 보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목포MBC 사장이다. <PD수첩>을 망친 또 다른 인물, 윤길용 울산MBC 전 사장은 역대 최악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MBCNET 사장 자리를 꿰찼다. 노조 탄압에 누구보다 앞장섰지만, 안광환

사장과 고영주 이사장에게는 회사 돈으로 수차례 선물을 보냈다. 장근수 강원영동MBC 사장은 '비선실세' 정운회의 아들을 드라마에 집중적으로 출연시켰고, 출연료 인상을 지시했다. 김철진 원주MBC 사장은 <PD수첩> 부장 시절 PD들의 서랍을 뒤지며 사찰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혀 망신을 당했던 인물이다. 심원택 여수MBC 사장 역시 <시사매거진2580> 아이টে에 대해 끊임없이 편향적인 검열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을 탄압했던 장본인이다.

춘천MBC는 송재우 사장 부임 이후 '메롱MBC'라는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허를 내밀어 조롱했던 송재우의 기행 때문이다. 집회 신고지를 임대해서 집회 못 하게하겠다는 해괴한 부당 노동행위까지 개발해냈다. 2015년 이진숙 사장 부임 후 대전

MBC는 '중동방송'으로 변했다. 방한한 이집트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한다며 직원 10여 명을 이끌고 서울 출장길에 올랐으면서도 갑을오토택, 유성기업 등 중요한 지역 뉴스는 축소시키고 외면했다. 비판하는 조합원들은 지사로 쫓아냈고 각종 징계를 남발했다.

낙하산 퇴진을 위한 전 조합원의 의지가 오늘 한 곳에 모인다. 조합은 오늘 오후 춘천MBC에서 전국 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을 선언한다. 지역 MBC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집회다. 오늘 집회는 낙하산을 모조리 몰아내고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 MBC만의 최대 강점이었던 지역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것 또한 이번 파업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전 조합원이 다시 한번 각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